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7월 인플레 3% 아래로... 예상보다 낮아
- Bloomberg: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의 핵심 내용은?
- Bloomberg: 아틀란타 연준 총재, “데이터 더 필요하며, 연말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
- CNBC: UBS CEO, “미 침체 거론의 시기상조...경기 둔화는 가능”

####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증시 변동성... 물가 보고서 ‘완벽하지 않지만 좋은 상황’
- Bloomberg: 금값 하락세...투자자들 인플레의 금리 여파 주목

#### [미국 대선]

- WSJ: 해리스, 경제팀과 경제정책 가시화된다

#### [물류]

- Bloomberg: LA 항, 7월 물동량 기록 경신

#### [유가]

- CNBC: 유가 안정세... 바이든 “휴전협상 타결 시 이란의 보복공격 보류 가능” 발언 후

####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 재융자, 2020년 이후 최대 증가... 금리 하락에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데이터 센터 기술자 수요 크게 늘어난다
- WSJ: 슈퍼마켓 진열대 공간 축소로 브랜드 간 경쟁 심화
- NYT: 연방 법무부, 구글 반독점법 위반에 ‘강제분할’ 검토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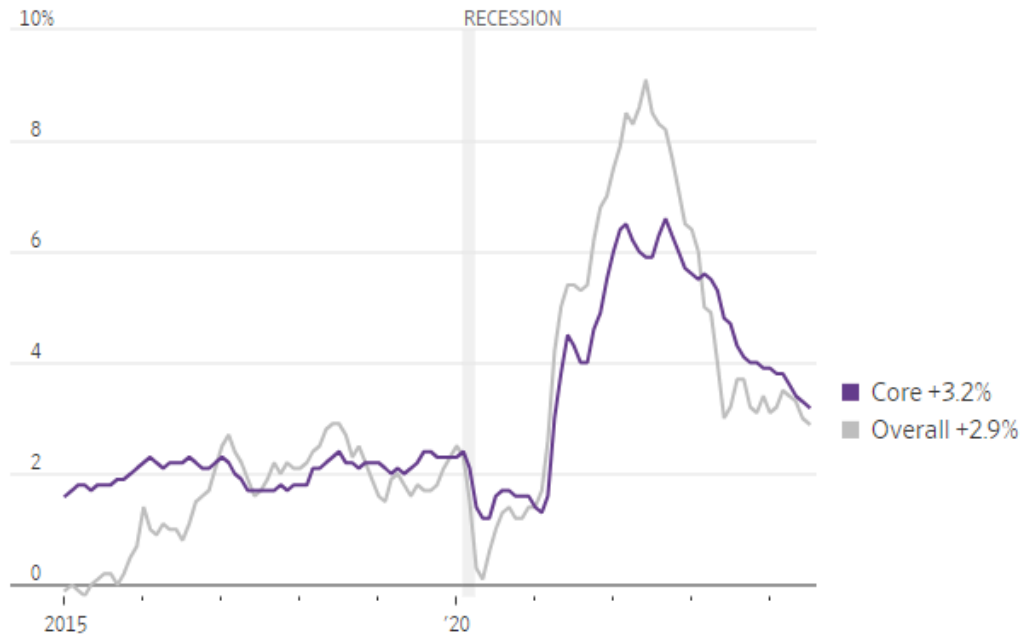
#### [미국 경제]

#### WSJ: Inflation Cooled to 2.9% in July, Lower Than Expected 7월 인플레 3% 아래로... 예상보다 낮아

- 7월 인플레가 낮아져 올해 들어 높은 인플레에서 돌아섰다. 오늘 수요일 연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2.9% 상승했다. 전문가 예상치 3%를 밑돌았다.
-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는 1년전과 비교해 3.2% 상승했고 6월에 비해서는 0.2% 높았다.

- 핵심 물가가 매월 기준으로 0.2%나 그 이하로 상승하고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난 2021년초 이래 3% 아래로 떨어졌다.
- 9월 17일 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연준의 FOMC회의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더 커졌다.

#### Consumer-price index, change from a year earlier



Note: Core excludes food and energy prices.  
Source: Labor Department

WSJ 기사

#### Bloomberg: Housing Costs Drive Most of Monthly Gains in US CPI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의 핵심 내용은?

-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는 1년전 비교해 3.2% 상승했는데 여전히 지난 2021년 초 이래 가장 둔화되는 모습이었다.
-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에 비해 2.9% 상승했는데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상승 수치의 거의 90% 이상이 거주 비용 상승 때문이다. 거주 비용 인플레이션은 6월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 거주 비용 인플레이션 지수는 6월에 0.2%, 그리고 7월 들어 0.4% 상승했다. 자동차 보험 인플레이션 지수는 6월에 0.9%, 7월에 1.2% 상승했다.
- 선물 거래에 따르면 올해 금리는 1% 포인트 인하되고 9월에는 50베이시 스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은 현재 50% 미만이라는 것.

Bloomberg 기사

## Bloomberg: Fed's Bostic Says More Data Needed, Rate Cut Likely by Year-End

### 아틀란타 연준 총재, “데이터 더 필요하며, 연말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

- 아틀란타 연준 총재인 Raphael Bostic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한번 금리를 인하하면 연준이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번 금리를 인하했다가 다시 거꾸로 금리를 다시 올리는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 그는 당초 입장처럼 올해 말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면서 “최근 지표들에 고무되어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Bloomberg 기사

## CNBC: UBS CEO says it's too early to talk about a U.S. recession, but a slowdown is possible

### UBS CEO, “미 침체 거론의 시기상조...경기 둔화는 가능”

- UBS CEO인 Sergio Ermotti는 수요일 올해 하반기에 시장의 변동성은 가속화되겠지만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간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 그는 연준이 올해에 금리를 적어도 50베이스스 포인트 이상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편 지난주의 경우 미국의 경제 지표를 트레이더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급격한 매도세를 보였는데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었다.

CNBC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Stocks Waver as CPI ‘Not Perfect, But Good Enough’: Markets Wrap

### 미 증시 랠리 주춤... 물가 보고서 ‘완벽하지 않지만 좋은 상황’

- 오는 목요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보고서가 연준의 금리 전망에 대한 베팅을 바꿀 정도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증시는 최근 랠리 이후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 S&P 500 지수는 12pm 현재 0.33% 상승한 5,452.47로 거래중이며 나스닥도 0.33% 상승한 17,243.95에서 거래되고 있다.

-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스왑 시장은 연준이 9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가격을 반영하고 있고 금값도 3월 이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Gold Drops as Investors Weigh US Inflation Matching Expectations

#### 금값 하락세...투자자들 인플레이의 금리 여파 주목

- 투자자들이 최근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 지표가 연준의 금리 정책 경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금값이 거꾸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금값은 오늘 수요일 오전에 0.59% 하락한 온스당 2,492달러 90센트로 거래되고 있다.
- 금값은 연방 은행들의 금리 정책의 완화와 금 매수에 대한 낙관적인 예상이 커지면서 올해 19% 상승했다. 특히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긴장 가운데 안전 자산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 일부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로 금값은 계속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미국 대선]

### WSJ: Kamala Harris's Economic Team and Agenda Start to Take Shape 해리스, 경제팀과 경제정책 가시화된다

- 미 대선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의 경제팀은 해리스의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주택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체적으로 아동 부양 근로자 가족에 대한 지원, 유급 가족 휴가, 비용이 낮은 가족 양육과 헬스케어 및 약값 등이 포함된다.
- 또한 그는 유세 기간 중에 50세대 이상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폭을 최대 5%로 하지 않을 경우 세금 공제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 그는 기본적으로 인기 없는 바이든의 정책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바이든의 정책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
- 한편 그녀의 경제팀에는 전 국가경제위원회 디렉터인 Brian Deese과 바이든 전 경제 자문 멤버들이 포함되어 있다.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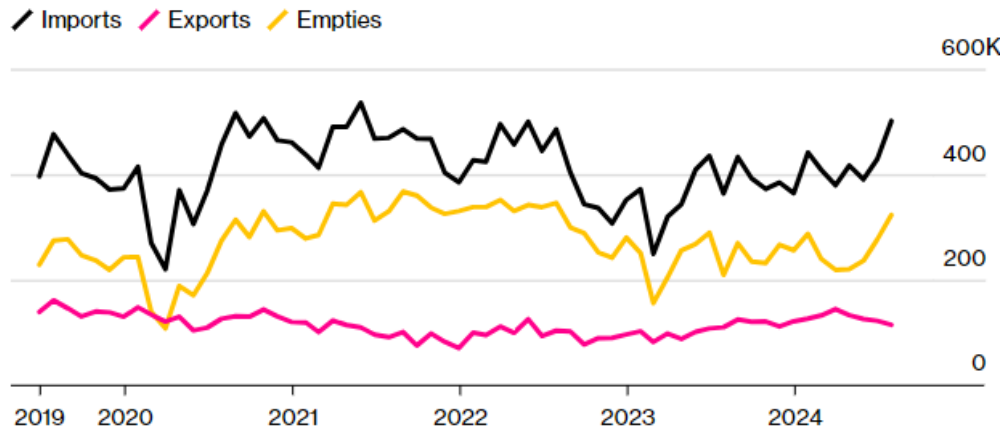
### [물류]

#### **Bloomberg: Port of LA Sets July Volume Record as Holiday Goods Arrive Early**

#### **LA 항, 7월 물동량 기록 경신**

- 지난달 LA 항구는 역대 7월 중 가장 많은 컨테이너를 처리했다. 이는 소매 업체들이 휴가철 상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서두른 결과이다.
- LA 항만청의 사무총장 젠 세르코카(Gene Seroka)는 화요일에 “장난감,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이 연말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금 입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업체들이 관세, 홍해 화물 우회, 그리고 10월부터 시작될 수 있는 동부 및 걸프 연안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 가능성에 대비하여 성수기를 앞당겼다고 덧붙였다.
- 미국에서 가장 바쁜 컨테이너 허브인 LA항은 7월 전년 대비 37% 증가한 총 939,600TEU를 처리했다. 지난달에는 501,000개 이상의 수입 컨테이너가 부두를 통과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7월에 항구를 떠난 수출 물량은 총 115,000TEU로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했다.

### Containers Flowing Through the Port of Los Angeles



Source: Port of Los Angeles  
Note: TEU = 20-foot equivalent container units

Bloomberg 기사

#### [원유]

#### CNBC: Oil prices steady after Biden says Iran could refrain from attacking Israel if cease-fire reached

#### 유가 안정세... 바이든 “휴전협상 타결 시 이란의 보복공격 보류 가능” 발언 후

-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후, 수요일 미국 원유 선물은 배럴 당 78달러 이상으로 거래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화요일 오후 기자들에게 가자 지구의 전투를 중단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지만 휴전을 중재하려는 노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 새로운 휴전 회담이 목요일 카타르에서 시작될 예정이지만, 하마스는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협상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CNBC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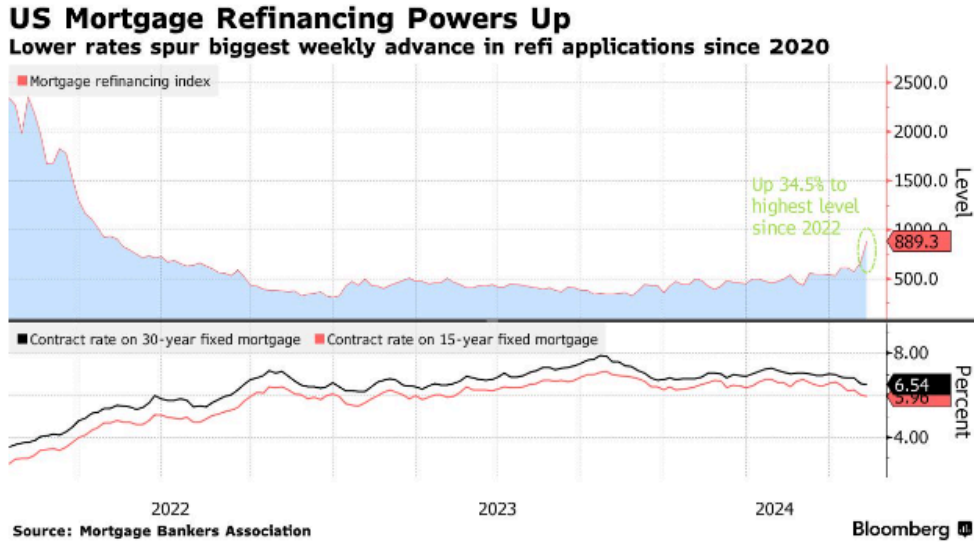
#### [주택]

#### Bloomberg: US Mortgage Refinancing Surges by Most Since 2020 on Lower Rates

#### 미 모기지 재융자, 2020년 이후 최대 증가... 금리 하락에

- 지난주 미국 모기지 재융자가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대출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 모기지 은행 협회(MBA)의 채용자 지수는 34.5% 상승하여 2년 만에 최고치인 889.3을 기록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모기지 신청도 8월 9일에 마감된 한 주 동안 2.8% 증가하여 6월 첫 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수요일에 발표된 MBA 데이터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1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6.54%를 기록했다. 15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7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5.96%로 작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채용자 및 구매 활동을 포함한 MBA의 전체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주 16.8% 상승하여 작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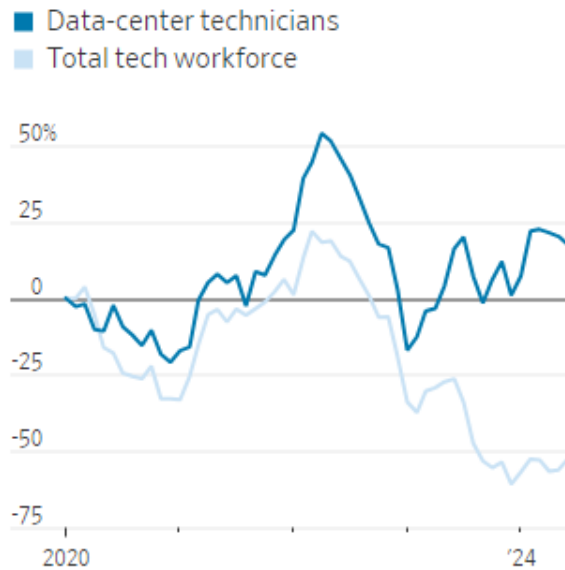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The Tech Job Paying Six Figures, No College Degree Required**  
 데이터 센터 기술자 수요 크게 늘어난다

- 24세의 데보라 마르티네즈 카스텔라노스는 버지니아주 애쉬번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미국 인터넷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는 학사 학위 없이도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었으며, 주로 서버의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 하고, 서버가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오류가 방치될 경우 많은 사용자가 은행 계좌 접근이나 이메일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 MS와 구글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카스텔라노스와 같은 데이터 센터 기술자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프로그래밍 및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수작업 능력이 필요한 새로운 직업군으로, 전통적인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경계를 넘어선다.

- 이러한 기술자 직업군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로 자리 잡았다. CompTIA에 따르면 서버 유지 및 수리부터 냉난방 시스템 운영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데이터 기술자의 평균 급여는 지난 3년 동안 43% 증가해 75,100달러에 이르며, 경력이 쌓이면 6자리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

Job postings, change from January 2020



Note: Data as of June 2024  
 Source: CompTIA analysis of Lightcast employer job posting data

WSJ 기사

**WSJ: ‘Stress on Shelves’—the Battle for Space in Store Aisles**  
 슈퍼마켓 진열대 공간 축소로 브랜드 간 경쟁 심화

- 슈퍼마켓과 식료품 매장에서 진열대 공간이 줄어들면서 브랜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소비자 리서치 기업 NIQ의 스티브 주렉(Steve Zurek) 부사장은 식료품점들이 취급하는 품목 수와 물리적 공간이 모두 줄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비자들이 식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명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매장 자체 브랜드가 진열대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 최근 몇 년간 식품 회사들은 원가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달걀, 커피, 우유 등의 가격을 인상해 왔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이제 치솟는 식료품비를 절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과 식료품점은 진열대에 어떤 제품을 배치할지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
- 소비재 및 식품 기업의 경영진들도 이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신제품 개발에 투자하고, 포장과 가격이 소비자와 매장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코나그라 브랜드의 재무 책임자 데이브 마버거(Dave Marberger)는 주요 진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 NIQ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과 2023년 사이에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의 면적이 각각 5%와 3.3% 감소했으며, 2020년부터 작년까지 소매업체들은 고유 제품을 거의 9% 줄였다.

## WSJ 기사

## NYT: U.S. Said to Consider a Breakup of Google to Address Search Monopoly

### 연방 법무부, 구글 반독점법 위반에 '강제분할' 검토

- 지난주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온 것이 드러나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들은 연방 판사에게 구글에 대한 시정 명령을 요청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또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와 같은 구글의 일부를 분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경쟁사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거나 아이폰과 같은 기기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설정하는 계약을 포기하도록 명령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관계들은 다른 기업 및 전문가들과 만나 구글의 권한을 제안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현재 심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판사는 법무부와 구글에 9월 4일까지 해결책을 마련할 절차를 정할 것을 요청했다. 9월 6일에는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 NYT 기사

## 수그러들지 않는 美경기침체 우려...골드만 "가능성 29%→41%로"

### JP모건도 20%→31%...모건스탠리 "주가 오르기 어렵지만 대세하락도 없다"

이달 초 급락하며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미국 주식시장이 2주 만에 많이 회복했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 등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침체 가능성이 수개월 전에 비해 커졌다고 지적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주식과 채권시장의 자금 유출입을 분석하는 모델을 활용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예측한 결과, 미국 경기침체 확률은 4월의 29%에서 최근 41%로 상승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